

## - 2019 한밭제일교회 사생결단 기도회 2/17 - 예수를 듣지 못한 삼국시대 사람들

- 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
- 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(로마서 1:20-21)

많은 분들이 가지는 질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, 가깝게는 조선시대, 고려시대, 그리고 삼국시대, 사람들은 예수를 전해 듣지 못했는데, 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.

그 때 그 분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?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으니 무조건 다 지옥 간 것일까요? 혹은 그 분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? 이 질문은 교회 내부든 외부든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질문입니다.

이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.

### 1.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.

- A. 자연만물을 보아도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.
- B.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.
- C.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며, 노아 방주 사건으로 새롭게 시작된 세상에서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잊었던 것입니다.
- D. 결국,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해서 라기 보다는, 그들 자신들의 죄로 하나님을 잊고 저버리고 불순종하여 자기들의 길로 가 버린 것입니다.

28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(로마서 1:28)

### 2.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모든 가능성 있는 일들을 다 시도해 보셨습니다.

- A.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그 분의 방법은, 홍수사건이었습니다.
- B. 하나님을 섬기는 노아 한 사람, 그 가족을 구별하셔서 홍수를 통해,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손길을 경험케 하셨습니다.
- C. 한두 명이 아닌 이 땅 모든 사람들이 죽는 가운데 그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.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잊힐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.
- D. 그런데, 안타깝게도 시간이 흘러, 노아가족을 통해 인류가 일어나고 형성되고 세상 모든 곳으로 흩어져가면서, 그들이 그 구원의 하나님을 서서히 잊어갔다는 것입니다.
- E. 우리의 질문은 “복음을 전해듣지 못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결과”가 아니라 “어떻게 그들이 그 결정적인 구원의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가”라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.

### 3. 하나님을 떠난 세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.

하나님의 절대적인, 결코 잊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가 시간이 흐르고 세상 속으로 흩어지면서 사람들에게서 잊혔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구원 얻기로 결정된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.

- A. 십자가 이전,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구약의 “욥”입니다.

- 1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
- 2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

3 그의 소유물은 양이 칠천 마리오 낙타가 삼천 마리오 소가 오백 겨리요  
암나귀가 오백 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 
가장 훌륭한 자라 (욥기 1:1-3)

8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 
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 
세상에 없느니라 (욥기 1:8)

B. 십자가 이후,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신약의 “고넬료”입니다.

30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 시 기도를  
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 
31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 
(사도행전 10:30-31)

4. 하나님의 구원은,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만이 아십니다.

34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 
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 
35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 
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(사도행전 10:34-35)

- A.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반드시 죄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시고,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.
- B.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 중에서 욥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
- C.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모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예수 복음이 전해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섬기게 되었습니다.
- D. 역사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나라와 민족의 활동에 대한 정확한

기록은 삼국시대에서부터 그 이전 기록들은 근거가 불충분하며 신화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.

- E. 삼국시대는 4세기 경이기 때문에,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후 약 400년 이후의 시대입니다.
- F.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경외하지 않아 자기들의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.

5. 오늘날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.

- A. 거의 2000년의 시간을 기다려 주신 은혜입니다.
- B.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서 살지만,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찾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저 내버려 두신 것도 은혜였습니다.
- C.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오늘 우리를 예정해 두셨기 때문에,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, 하나님께서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와 자비로 인내하셨던 것입니다.

- 8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
- 9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 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
- 10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불에서 택하였노라
- 11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를 이를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욥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(이사야 48:8-11)
- 12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
- 13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(요엘 2:12-13)